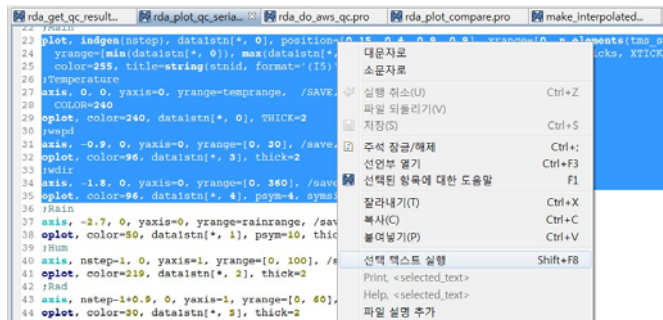


Workbench 유용한 기능



선택 텍스트 실행(CTRL+F8)

IDL은 이름 그대로 Interactive한 실행이 장점입니다. 에디터에 있는 코드의 일부를 실행 해보고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할 때가 있지요. 이 때, 코드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긁어도 되고, 한 줄이라면 세 번 연속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 텍스트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디터의 내용을 Copy하여 명령줄에 Paste해서 테스트하였지만, 선택 텍스트 실행이 더 편리합니다. 단축키 CTRL+F8입니다.



도구막대 설정 변경

도구막대(ToolBar)는 워크벤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뉴들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메뉴는 몰라도, 만일 도구막대에 있는 기능을 한번도 써 본적이 없다면(꼭 도구막대를 통해 쓸 필요는 없지만), 도구막대의 버튼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처럼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나 LCD 프로젝터에서 발표를 할 때, 도구막대까지 화면에 있으면 코딩 공간이 너무 좁지요. 뿐만 아니라 가로 방향 해상도가 낮아지면 도구막대가 두 줄로 되는 경우도 있어 가뜩이나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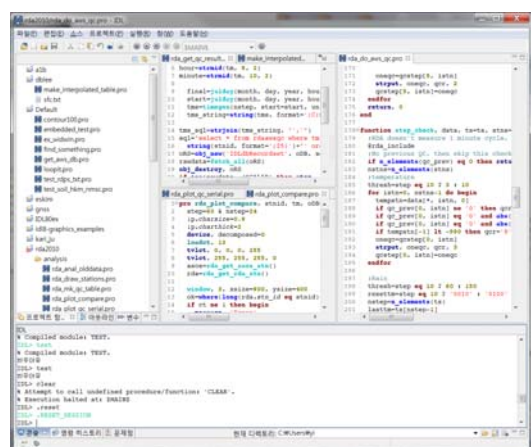


- 창 메뉴에 "도구막대 감추기" "도구막대 보이기"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 도구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작은 아이콘, 텍스트 보이기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설정을 찾아보세요.

여러 개의 에디터

화면 해상도가 작다면 한번에 하나의 에디터를 보는 것이 적당하겠지만, 넓은 모니터를 쓴다면 에디터를 동시에 두 개 띄워 두 코드를 비교해 가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여러 개의 코드가 한 공간(뷰 그룹)에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탭을 통해 작업할 에디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한번에 하나의 코드만 볼 수 있지요.

- 탭을 마우스로 잡아 에디터 공간의 상하좌우 공간으로 이동해 보십시오. 에디터 공간의 가장자리쪽에 이르게 되면 화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검은색 테두리가 나타나며 선택한 에디터가 위치할 자리를 보여 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면 지정 위치에 동시에 창이 보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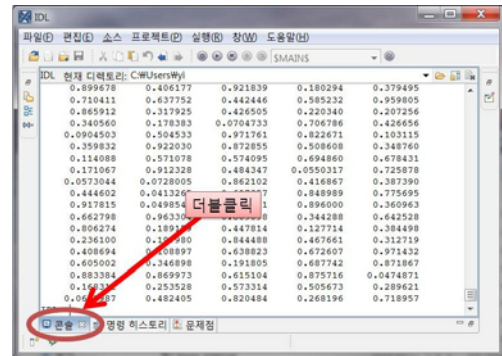


- 꼭 두 개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꼭 좌우로만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편한대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선택 뷰를 전체 화면으로 (CTRL+m)

화면이 넓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특정 뷰를 넓게 펼쳐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에디터와 콘솔인데요, 코딩을 하다가 좀 더 넓게 전체 코드를 보고 싶거나, 콘솔 뷰에 출력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 확장하고자 하는 뷰의 탭(손잡이)를 더블클릭하세요. 선택한 뷰가 워크벤치 화면의 거의 전체를 차지할 것입니다(작업중인 창에서 CTRL+m으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때도 해당 탭을 더블클릭하세요. (단축키는 역시 CTRL+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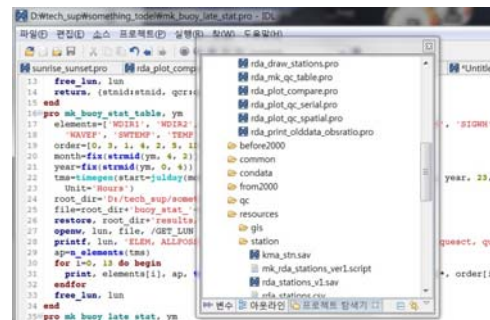
콘솔뷰를 전체 화면으로 넓혀 보기

코드 자동 정렬 (CTRL+Shift+f)

IDL 프로그램은 들여쓰기 등에 강제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블록 단위를 인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들여쓰기를 하거나, 이어지는 행임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연속 행부터는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은 건 좋은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런 들여쓰기를 일관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Ctrl+Shift+f 단축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메뉴 상으로는 소스→포맷 을 실행하면 됩니다.

뷰를 워크벤치에서 떼어 내기

에디터 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뷰는 워크벤치 틀 밖으로 떼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경우라면 메인 창에는 IDL 워크벤치를 배치하고 다른 모니터에는 프로젝트 탐색기를 떼어 놓고 사용하는 등, 화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넓게 쓰기 위해 콘솔 뷰를 떼어 내서 다른 모니터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개의 뷰를 동시에 워크벤치 바깥쪽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워크벤치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꺼내져 있는 뷰의 탭(손잡이)를 마우스로 잡아 워크벤치의 원하는 뷰 그룹 위에 올려 놓으면 됩니다.



프로젝트탐색기 등 뷰그룹을 별도창으로 떼어냄

콘솔뷰와 에디터를 오고 가는 단축키

콘솔 뷰에서 대화식 작업을 하다가 에디터로 와서 코드를 수정하고 콘솔 뷰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이처럼 콘솔 뷰와 에디터를 오고가는 것은 IDL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때마다 마우스를 이용해 포커스를 옮길 수도 있지만 마우스에 손이 가는 것마저 번거롭게 느껴질 때 단축키로 이 두 뷰 사이를 오고갈 수 있습니다.

- Ctrl+i 는 콘솔 뷰로 포커스를 옮깁니다.
- Ctrl+q 는 에디터 뷰로 포커스를 옮깁니다.

다른 뷰로 옮겨 가는 단축키도 있지만 크게 활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IDL에서 에디터와 콘솔 뷰(8.0부터는 콘솔뷰가 명령 입력 행까지 포함합니다) 만큼 중요한 창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 확인 및 변경

cd 명령문으로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고,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렉토리 계층이 또렷하게 생각나는 상황이 별로 없지요. 디렉토리를 한 글자라도 잘못 입력하면 에러만 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IDL 8.0부터 소개되는 "현재 디렉토리" 기능은 워크벤치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위치하지만 cd 명령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능입니다. 이곳을 통해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풀다운 메뉴를 통해 방문했던 다른 디렉토리로 옮겨가거나, 오른쪽의 폴더 버튼으로 새로운 디렉토리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